

精神的 平和의 進一步

精神的 平和의 進一步

河賢基 翻譯

*Steps Toward
Inner Peace*



PEACE PILGRIM

피스 필그림



이것은 피스 필그림이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받치는 강화(講話)이다.

精神的 平和의 進一步

젊었을적에 나는 두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번째는 돈 번다는 것은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안 것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어리석게 써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 한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돈벌자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 그 당시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 했고 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아주 깊이 해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밤새도록 숲속을 걷다가, 지금에는 알게된,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한 벽에 봉착하였습니다. 아무런 주저 없이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생애를 봉사하며 헌신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뜨겁게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도리킬수 없는

기로에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 생활로 되돌아 갈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내 생애의 제 이 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되도록 갖으며 사는 대신 되도록 주며 사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나는 하나의 정말로 찰란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 갔습니다. 나의 삶이 보람스럽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건강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후 감기에 걸리거나 머리가 아픈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부분의 병은 심리적인 데서 유발한다.) 그 이후로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평화의 양상을 다 포함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간의 평화, 그룹간의 평화, 개인간의 평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나의 정신적 평화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을 기꺼히 받치겠다고 하는 결심과 실제로 나의 생명을 받치며 살아간다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 사이에 십오년이란 내적 모색을 하는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간 중에 나는 심리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사욕** 과 **양심** 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자신, 두 개의 성품, 두 개의 의지,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되는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너무나 상반된 두 관점을 가진 내 자신의 틈바귀에서 투쟁하고 있는 그 당시의 나 자신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는 산정과 계곡이 여기 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투쟁 하던 중 갑자기 한 산정에 올라가서 찰란한 빛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내적평화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통일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동료들과의 통일성, 모든 창조물과의 통일성이 었습니다. 그후로 부터 정말 내가 혼자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산정에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조금씩 더 오래 머물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간간히 미끌어져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선듯 잠에서 깨고 보니 찰란한 아침이 되었는데 다시는 계곡에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그 투쟁은 끝났으며 그것은 내 생명을 바침으로 내적 평화를 찾는데 마침내 나는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요 이젠 그런 투쟁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투쟁은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 자신이 내 의지대로 바른 일을 해 나갔으며 누가 시켜서 할 필요가 없어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생애의 제 삼 단계에서 엄청 큰 전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생의 그림 조각들이 한 복판에서 완전하고 선명하고 불변하게 맞추어지고 또 그 주위에 다른 조각들이 계속 맞추어 지면서 변두리가 점점 커져 가는데 그 진행과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온갖 선한 것들, 사랑과 평화와 기쁨 같은 것들이 주위를 항상 감싸고 있는 느낌이 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위에서 안을 보호하고 있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확고부동한 것으로 앞으로 당면할 어떤 난관도 맞이 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고 내가 엄청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러한 난관을 쉽게 극복 할 내적 자원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조용함과 평온함과 신중함이 있어서 이젠 어떤 것에도 고투하고 긴장할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선으로 충만하고 다시는 인생이 혼잡스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한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이 모범이 되어 살며 내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에 순종한다면 나의 인생은 선한 것으로 충만하고 혼잡스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나의 생활이 혼잡스럽다면 나의 행함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갖기 보다는 주며 사는 것입니다. 네가 주는데 열중함에 따라 너는 주지 않고는 갖을 수 없고 또한 갖고서는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훌륭한 건강 행복 내적 평화를 갖고서 말입니다. 거기에서 넘치는 에너지를 느낍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에너지는 마치 공기처럼 무한하게 보입니다. 바로 우주의 에너지의 원천지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생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의 이기심이 결코 나를 주장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안락과 편의를 바라는 욕구에 따라, 또한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욕구에 따라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상한 자아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감정을 지배합니다. 내 몸에 말하기를 "저 세멘트 바닥에 누어서 자라" 라고 한다면 내 몸은 그에 복종을 합니다. 내 마음에 말하기를 "다른 모든 것을 덮어 두고 당면한 이 작업에 열중해" 라고 한다면 내 마음은 그에 순종합니다. 내 감정에 말하기를 "이 무서운 지경에 당면하고 있을 지라도 조용해" 라고 한다면 내 감정은

그에 침묵을 지킵니다. 이것은 독특하게 삶을 영위하는 한 방법입니다. 철학자 소로가 기록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과 더 어울리지 않기에 이룬다면 아마 그는 어떤 다른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썼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다른 북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속한 자아가 아닌 고상한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되었다, 부름을 받았다, 혹은 자극을 받았다고 느끼고 세계평화를 위한 순례여행, 즉 전례적으로 하는 이 투쟁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 바로 1953년 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위하여 하루 하루 보행을 하는 것이 전례적인 순례여행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글자가 박힌 긴 옷을 입었습니다. 앞쪽에는 "평화의 순례자"란 글자를 썼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내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나 대신에 나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 쪽에는 "25,000 마일 평화의 보행"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옷을 입는 목적은 단순히 나와서의 접촉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간선도로를 따라 가고, 도시를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걸어 갈 때 사람들은 나에게 접근하고 그럴 때면 나는 그들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갖습니다.

나는 한푼 없는 순례자로서 25,000 마일을 걸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란 입은 옷과 나의 작은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몇가지 뿐입니다. 나는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인류가 평화의 기로에 들어 설 때 까지 방랑자로 남아서 잠잘 곳이 있기 까지 걸을 것이고 먹을 것을 받기 까지 굶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어떤 것도 구하지를 안했는데 내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량한가를 보았습니다.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평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길이다 - 악은 선으로, 허위는 진실로, 증오는 사랑으로 극복하라. 이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이 새로운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세계적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상황은 우리 자신의 성숙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숙하고 화목하는 사람이라면 전쟁은 문제 될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해서 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데서, 우리 자신 안에서 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마음 속에 평화를 더욱 가질수록 외부적 상황에 평화를 더욱 반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존하려는 본능은 어떤 양상의 불안정한 세계평화로 우리를 몰고 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한 내적 각성에 의해서 지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솔직히 믿습니다. 원자력을 발견한 후 우리는 신세계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이 신세계는 이 신세계가 수반하는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차원이 높은 이해력으로 우리의 위상을 올리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제는 우선적으로 세계평화를 달성하는 일진의 작업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평화로 채우는데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내가 정신적 평화의 진일보를 설명할 때는 어떤 기본적인 골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일보의 과정이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길어 질 수도 있고 짧아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주제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정신적 평화의 진일보가 어떤 정해진 순서를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첫 디딤이 다른 사람에게는 마지막 디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당신에게 가장 쉽다고 보이면 그것 부터 시작 하십시오. 그리고 몇 발을 디디고 가다 보면 몇 발작 더 디디고 나가기가 쉬워 집니다. 이런 과정을 밟아 가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경험을 또한 서로 나누워야 합니다. 순례여행에 나서라고 인도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고 순례여행에 나서라고 종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삶에 조화를 찾는 마당에서 우리의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정신적 평화의 진일보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은 이미 당신이 밟아 온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나에게 필요한 몇가지 준비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준비 사항은 **생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그 뜻은 도피자가 되지 말라는 것, 시시하고 보잘 것 없는 껌데기로 걸치레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까요. 그런 사람들 한테서 가치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삶을 정면으로 당당히 맞이 해야 합니다. 삶의 표면 바로 밑에 숨겨진 진실한 것을 찾아 보십시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인생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일 전체적인 상황을 한 눈으로 볼수 있었다라면, 또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알았다라면 당신에게 몰려 온 문제가 당신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이 당신의 내적 성장에 기여하지 아니 할 것이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문제거리는 단지 가리워져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 인생은 그저 표류하고 끝내 정신적 성장을 얻지 못 할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자를 쫓아서 문제를 해결 함으로서 만이 정신 성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적인 문제는 공동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제 군비축소나 세계평화 같은 공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각기 맡은 자기의 몫을 하기를 회피하는 사람은 정신적 평화를 찾지 못 하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향하여 공동적으로 그 작업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의 준비사항은 **우리의 인생을 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의 법으로 천지만물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법도 만들어 졌습니다. 이 두가지는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에 다 적용되며 또한 이 두가지 법칙이 인간의 행위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이 법칙들을 이해 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을 이 법칙들에 적응하는 한 우리의 생활은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이 법칙들에 불순종하는 한 우리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들 자신에게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의 최악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지로 인하여 조화속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얼마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반면에 만약 그것을 잘 알면서 계속 조화속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때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알다싶이 이 법칙들은 잘 알려져 있고 잘 믿어지고 있으므로 그 법칙들이 단지 잘 지켜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흥미있는 한 사업으로 바빠졌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모든 좋은 일들을 다 지키며 살자는 것** 입니다. 나는 그런 좋은 것들을 **한번에** 다 맡아 하려다가 내 자신을 혼돈에 빠트리지 안도록 조심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알면서도 하고 있으면 그 하던 일을 당장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민첩하게 포기**를 단행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서서히 한다는 것은 길고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알고 있는 일이 있으면 돌아 서서 그것을 열심히 하기에 힘을 씁니다. 믿는 것을 쫓아서 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가능합니다. 이제는 어떤것을 믿으면 믿는 데로 삽니다. 그 외의 길이란 정말로 무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최고의 빛을 따라 살아 나갈 때 또 다른 빛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빛을 더 받으며 내가 가진 빛 대로 계속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법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야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며 서로 배워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각자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 각자 각자가 어떤 **고유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고유성에 속해 있는지 명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다면 영감적 침묵 속에서 그 답을 찾아 볼 것을 나는 제의합니다.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걷곤 합니다. 그럴 때면 놀라운 통찰력이 나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그 좋은 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 좋은 일을 다 하며 사는 내 생활 방식을 내 몸에 익히기 시작 하였습니다.

인간생활을 늘 혼잡하게 해 놓는 온갖 걸치레들을 제쳐 버리고 인생에 그 좋은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 슬픈 일 입니다. 하루는 고속도로를 따라 걷고 있는데 한 아주 멋진 차가 서더니 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소명에 따라 사신다니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하는 것이였습니다. "누구나 옳다고 느끼는 것은 해야한다고 확신합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어떤 동기로 무엇을 하는가를 나에게 들려 주었고 필요에 따라 봉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그런 말에 기뻐서 흥분했고 그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지금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지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 남자가 얼마나 얼마나 불행하게 보였는지 나는 생전 잊지 못 합니다. 아시다 싶이 이 물질 시대에서 돈으로 성공을 재는 헛된 기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돈으로 재고 물질로 잼니다. 그러나 행복과 마음의 평화는 그런데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 입니다.

네 번째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단순화** 인데 외적 복지와 내적 복지, 심적 복지와 물질 복지를 생활속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그것이 아주 쉽게 이루어 졌습니다. 나의 인생을 봉사하며 살기 시작한 직후 바로 느낀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못가지고 있는 처지에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게는 용납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생활을 필요한 수준으로 나를 떨구 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입은 옷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밖에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무엇을 빼았겼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 내게 필요치 않는 어느것도 당신이 나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필요없는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지 필요없는 짐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것 보다 훨씬 클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에게 가정이 달려 있다면 당신은 자녀들을 위한 안정된 가족센타가 필요할 것 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어떤 것, 때때로 물질적 필요성을 초월한 것들을 포함해서, 필요 이상의 것은 어떤 것이나 다 짐스럽게 되기 마련 입니다.

단순한 생활에는 크나 큰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느끼기 시작 하면서 부터 나는 내적 안녕과 외적 안녕 사이에서 내 생애의 어떤 조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조화에 대하여 할 말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한 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계는 물질적인 사치에 빠져있고 국가간의 불화는 깊어지는 현실을 바라 볼 때, 원자력 같은 것을 발견하여 그것으로 폭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쓸 위험성이 평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 안녕이 외적 안녕에 뒤 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연구에는 내면적이며 심리적인 양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양면을 균형지게 해 놓을 우리의 연구 능력을 구축하고 결국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외적 안녕을 어떻게 잘 이용 할 것인지 연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발견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정확였습니다. 첫째것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신체적 정확** 입니다. 그것은 나의 신체적 생활습관에 관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적당하게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먹기를 멈춰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익혀야 할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충분히 자는 습관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일찍 자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노력합니다. 당신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과 운동과 자연과의 접촉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기꺼이 노력 할 첫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실질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종종 맨 나중 것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벗어 버려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을 이 처럼 죽자고 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정확성은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정신적 정확**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안다면 당신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인 쪽이면 좋은 것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이 부정적인 쪽이면 육체적 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번은 65세 된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몸에 어떤 만성질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어떤 원한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발견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성장한 아이들과 잘 지냈으며 자기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원한이 여전히 엿 보였습니다. 그는 오래 전에 돌아간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은 교육을 시켰으나 자기는 교육을 안 시켰다는 원한이 었습니다. 그가 이 원한을 버리자 그 흔히 말하는 만성 질환이 곧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얼마가지 안해서 그는 그 질환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만약 누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원한이나, 무엇이든지 어떤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빨리 없애 버려야 합니다. 누구 보다도 당신이 더 상처를 입습니다. 미워함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미움을 주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저 바른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조화를 이루려면 바른 것을 생각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세 번째의 정화는 **욕구의 정확**입니다. 당신이 욕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새 옷인가, 여행인가, 새 가구인가, 아니면 새 차인가? 모범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꼭 알고져 하는 것을 한 가지로 귀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욕구의 정확보다 더 바랄것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 더 말 할 정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기의 정확**입니다. 당신이 하려는 무엇이 있는데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순수히 탐욕적인 것이거나 이기주의적인 것이거나 개인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오**라고 단호하게 말 하겠습니다. 그러한 동기로는 어떠한 것이던 간에 하지 마십시오. 아주 조잡한 동기,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석어서 일을 하기가 일수인데 그리하지 않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한 남자의 사업동기가 아주 높는데 있지는 않고 그저 자기 가족을 돌 보고 혹은 친구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한다는 그 사업가의 동기가 그 속에 석여 있습니다. 이런 동기들로 혼잡이 되어 있지요.

만약 당신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동기는 남을 위한 동기이어야 하며 그것은 봉사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어야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훌륭한 한 건축가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동기로 건축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다른 건축가에 앞 질러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로로 그만 어떤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런 직후에 그를 만났지요. 나는 그가 약간의 봉사를 하도록 그를 인도 하였습니다. 그에게 봉사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내 충고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 그를 보고 나는 그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결코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후 우리는 약간의 통신을 교환 했습니다. 삼년째로 나는 순례여행의 길에 올랐고 나는 그가 사는 도시를 통해 걸어 가다가 들려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나는 그를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것처럼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건축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 싶이 지금은 주인의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지요. 대지에 집을 이렇게 잘 얹쳐 놓고 보기 좋게 설계를 합니다." 그의 동기는 주인의 예산에 걸맞는 설계를 함으로서 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뭇 행복한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지금은 집설계 요청이 멀리서도 오기 때문에 그의 사업이 늘어 났다고 그의 아내가 나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을 더러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단지 일하는 동기만 바꾸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이것은 버리는 일입니다. 당신이 버리는 일을 시작하면 당신의 내적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아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하려는 일이 좋지 않은 것이면 하지 말고 멈추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만약 어떤 동기로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하고자 할 때면 항상 좋은 것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하게 이왕이면 태도를 바꾸어서 같은 에너지로 좋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버릴 것은 **이탈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한 우리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 할 때 우리는 깊은 이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능히 알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사물을 판단합니다. 인간의 몸은 전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동료인간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총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나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이해하고 나면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이것이라고 귀결 짓게 됩니다. 즉 전체의 유익이 첫째인 것입니다. 당신이 보잘 것 없는 자그만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일하는 한, 당신은 다른 모든 세포들을 대항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단적 세포가 되고 맙니다. 당신은 조화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모든 동료 인간들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편안하고 확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버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애착의 대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제 자리에 두어야 하며 거기에 두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있어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용성이 끝난 것이면 버릴 준비를 하십시오. 아니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유용성이 지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을 잡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시대에 묻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잡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소유성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다른 인간을 소유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아무리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내를 소유한 남편은 없으며, 남편을 소유한 아내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소유한 부모도 없습니다.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극심한 불화를 초래합니다. 그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각성을 했을 때 만이 자기 자신의 내적 동기를 쫓아서 살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조정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과 화합하여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것 입니다. 아무리 마음씨 좋은 사람 일지라고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란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은 **관심**과는 다릅니다. 관심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되게끔 동기를 주는 것이고 걱정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쓸데 없이 머리를 짜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 봅시다. 대개 현 시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합니다. 그리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 하느냐 하면 오래전에 벌써 잃어 버렸어야 할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괴려워하고,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일을 가지고 우려하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슬쩍 넘겨 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재야 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 시점에 살고 있지 않으면, 당신은 참다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현재 이 순간이야 말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새롭고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때 나에게 크나 큰 도움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피상적인 사물이나 피상적인 사람들이 저에게 심리적으로 피해를 주지 못 합니다. 내가 단속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내 자신 잘못을 저지렀을 때 나는 심리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하기가 좀 까다로우나 나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정세 같이 나의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것이 피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나는 정말 자유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상처를 주는 일을 딱 멈추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비열한 행동을 할 때면 이 부조화스런 사람을 향한 깊은 동정심을 느낍니다. 나의 쓰라리거나 노여운 잘못된 반응으로 인해서 내 자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나는 완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언제나 원하면 상처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나누고져 하는 내적 평화의 진실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다고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만민에게 공통된 우주의 진리입니다. 내 자신의 그런 개인적 경험을 나의 일상 용어를 써서 이야기 했을 뿐입니다. 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은 우리가 순종하는 때를 따라 선을 행하며 어떤 것이라도 이 법들에 위반되는 것이면 오래 가지를 못 합니다. 그런 속에는 자멸의 씨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각자의 생활속에는 선한 것이 있고 우리가 이 법들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 안에 뿐만 아니라 세계 안에 평화가 올 때가 언제 있을 것 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은 로스엔젤스 KPFK 라디오 방송담에서 발췌한 것임)

개요

준비하고, 정확하고, 포기할 것들

- 네 가지 준비사항 -

1. **바른 생활태도를 가져라.**

회피하거나 걸치레하며 살지 말라. 그런 생활은 당신의 인생에 불협화만 초래 할 뿐이다. 인생을 정면으로 대면하라. 인생의 표면 밑으로 내려가서 거시서 진실한 것, 사실인 것 들을 찾아 보라. 당신 앞에 놓인 인생문제를 지체말고 해결 하라. 그리 함으로서 당신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공동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데 조력하는 것도 당신의 성장에 기여한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결코 회피 해서는 안된다.

2. **바른 믿음으로 살아라.**

인간의 행위를 통괄하는 법칙들은 중력의 자연법칙 처럼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 법칙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평화롭게 된다. 그 반면에 이 법칙을 불순종하면 우리는 불화에 빠진다. 이런 법칙들은 이미 일반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모든 좋은 일을 실행하는데 쓰면 된다. 믿음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 졌을 때 생활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3. 바른 생활양식을 수립하라.

당신이 일을 하는데는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이 무엇인가는 당신만이 속으로 알 수 있다. 당신은 영감적인 침묵 속에서 그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을 찾아서 계획대로 생활을 시작하라. 사람의 생활을 흔히 점령하고 있는 모든 피상적인 것들을 던져 버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좋은 모든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 세우라.

4. 내적 및 외적 안녕을 조화 시키기 위하여 생활을 간소화하라.

불필요한 소유물은 불필요한 짐이된다. 필요가 없고 더욱이 무의미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혼잡하게 되기가 쉽다. 혼잡스러운 생활은 부조리한 생활이므로 간소화 해야 한다. 인간 생활에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동일하게 마추어지면 생활이 모두 간소화 된다. 그럴 때 내적 안녕과 외적 안녕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며 그러한 조화는 개인 생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에도 반듯이 필요하다.

- 네 가지 정화 할 것들 -

1. 육체의 정화

당신은 모든 나쁜 식생활에서 벗어 났는가? 매일의 식생활에서 과일 현미 야채 견과 같은 절대 필요한 식물물을 강조하는가? 일직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잠을 자는가? 신선한 공기, 햇빛, 운동, 자연과의 접촉이 충분한가? 만약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몸을 성스러운 육체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진전을 볼 것이다.

2. 생각의 정화

바른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도 바르게 하여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선한 일을 하는데 지대한 영양을 끼친다. 부정적인 생각은 육체적 병까지 일으킨다. 당신 자신과 다른 어떤 사람과 불화스럽고 난처한 사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왜냐하면 나쁜 생각을 품지 않게 될 때 만이 당신의 내적 조화가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3. 욕구의 정화

당신이 하려는 계획과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우주의 법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할 때 당신의 욕구를 이런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동기의 정화

당신이 행동하는 동기가 탐욕적인 것이거나 이기주의의 것이거나 자기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어서는 분명히 안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내적평화를 얻으려는 것도 이기적인 동기에 두어서는 안된다. 당신의 동료 인간에게 봉사한다는 순수한 동기가 당신의 생활에 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한다.

- 네 가지 버려야 할 것 -

1. 아집을 버릴 것

아무리 보아도 당신은 두 자아를 가지고 있다. 대개 이기적으로 당신을 움직이는 저등자아와 당신을 영광스럽게 쓰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고등자아가 있다. 좋지 못한 일을 하려는 저등자아를 억제하고 굴복시켜야 한다. 저등자아를 억압하지 말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고등자아로 하여금 당신의 생활을 주장하게 하라.

2. 이탈감은 버릴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 하듯 인간의 몸은 세포로 되어있다. 당신은 동료 인간으로 부터 이탈되어 있는 개체가 아니며 혼자서는 조화를 찾을 수 없다. 전체의 통일성을 알고 전체를 위해서 모든 좋은 일을 함으로서 만이 조화를 발견한다.

3. 애착물을 버릴 것

모든 애착물을 버렸을 때 만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 물질적인 것은 두고 쓰게 되어 있으나, 그 유용성이 지나버린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을 올라맨다. 동료인간을 소유하고 그들의 생활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버릴 때 만이 동료인간과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다.

4.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것.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데 힘쓰라. 당신은 현재라는 순간에 살고 있으며 그렇게 살수밖에 없다. 이 현 시각을 인식한다면 이세상에 염려 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비열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나면 당신의 노여운 생각이 불쌍한 생각으로 바뀔 것이다.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된 행동 혹은 당신의 잘못된 반응 혹은 당신의 잘못된 비활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그때는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볼 점들

* 우리는 모두 좋은 일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날 때 마다 어떤 용기를 북돋는 말, 친절 한 한마디 말, 도움이 될 만한 힌트, 감탄스러운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내라. 어떤 처지에 당면 할 때마다 사려깊은 선물 한가지, 이해심이 깊은 태도, 도움이 될 만한 일손거리, 이런 좋은 일을 할 것을 생각해 보라.

* 생각하고 있는 착상이나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신에게 바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 **그것이 당신에게 정신적 평화를 가져왔는가?** 그렇지 않을 때면 무엇인가 잘못된 데가 있다. 그러므로 계속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

*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을 배풀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반응한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내 자신을 나무래야 한다. 왜냐하면 내 행동이 옳았더라면 비록 그들이 나와 동의는 하지는 안 했다고 래도 상처까지는 받지 않는 안했을 것이다. "혀가 말을 하기 전에 혀는 찢려 상처를 주는 칼과 같은 능력을 상실해야 한다."

* 의기가 소침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되도록이면 당신의 환경을 아름다운 음악과 예쁜 꽃으로 장식을 하라. 영감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책을 읽어나 아름다운 구절을 암송해 본다.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다 적어 본다. 항상하고 싶었던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실행에 옮긴다. 당신에게 뜻있는 한 계획을 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 남들이 당신을 딱하다 안다하며 측은하게 볼지라고 당신은 절대로 그런 생각에 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당신의 영적 안령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 문제거리가 있겠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런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 당신이 읽은 모든 책 중에서,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 중에서 무엇이던 당신의 심중의 선생이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좋은 것들은 택하고 나머지는

내 버리라. 인도를 받고 진리를 찾으려면 책이나 사람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심중의 선생을 통하여 해답의 원천을 찾아 봄이 훨씬 낫다. 책이나 사람은 단순히 영감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일꾸어 주지를 못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 물건이나 장소에나 사람에나 집착이 되어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물건이 필요 할 때 쓰되 그 유용성이 끝이 났을 때는 후회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살고 있는 장소를 감상하며 즐기되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떠나라.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살되 그들을 손에 쥐고 그들의 삶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된다. 잡아 쥐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바로 나를 잡아 쥘다. 나의 자유를 진정으로 얻으려면 남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 영적인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그외의 다른 것은 모두 환상이요 기만에 불과하다. 오로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전능하신 분을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삶의 조화를 발견한다. 고귀한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선을 위한 능력을 받는다. 남들이 눈에 띄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대견스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결과를 추구하거나 바래서는 결코 안된다. 하는 일이 바르고 하는 말이 바르고 하는 생각이 바르면 좋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 모든 사람이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평화스럽지 못한 관계에 융화를 이루었다면 전체적인 평화 형세에 공헌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애 평화를 유지하면 그것이 주위에 반영되고 나아가서 세계에 반영 하게 된다

* 밖에서 받아들인 것은 지식과 비등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믿음에 이르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길 만큼 힘이 세지를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이 밖에서 들어 온 후 내 안에서 확인된 것이거나 내 안에서 직접 인식이 된 것일 때 그것은 지혜와 비등하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어떤 안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며 그때에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

* 영적성장에 있어서 흔히 필요한 것은 생애에 얼킨 수다한 인맥를 끊어 버리고 수다한 행적을 덩어 버리고 물질적인 어떤 것에도 이제는 연관이 되지 안했을 그때 나에게 아무런 영관이 없는 모든 사람들까지 사랑 할수 있게 된다.

* 어느때 어느곳을 떠나던지 사랑을 남기고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상처를 입는다.

* 젊은이든 늙은이든 사람을 가르치기를 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이미 당신을 능가한다고 보면 그들이 당신을 역으로 가르치도록 하라. 영적으로 진보하는 길이란 그렇게 순서가 다를 수가 있는 고로 대개 서로 간에 가르칠 수가 있다.

* 사랑의 법을 배우기 이전에 육체적 폭력을 멈출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폭력은 사랑하는 법을 터득한 후에야 멈출 수 있다. 외상적 평화는 단지 법으로 유지 다고 하겠지만 내부적 평화는 사랑을 통해서 만이 이루어진다.

* 주는데 전념하라. 그러면 받을 문이 열린다. 받은 빛대로 사는데 전념하라. 그러면 빛을 더 많이 받을 문이 열린다.

* 몸이란 때때로 벗어버리는 옷과 같이 귀찮은 존재이다. 그런데 실로 몸을 움직이는 불멸의 요소가 있다.

* 정신적인 평화를 찾은 후에는 영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높은 자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된다. 누구의 권유에 따라 할 필요가 없다.

*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사람을 위협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요 믿음이다. 증오와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융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임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쉽다.

*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융화 하도록 당신은 인도를 받고 연단이 되고 성장을 하는 것이다.

* 바른 일을 하는데는 **항상** 어떤 길이 열려 있다.

*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미성숙**에 기인 한 것이다. 우리가 성숙했었다라면 전쟁은 문제가 되지 안했을 것이며 더욱 불가능 했을 것이다.

* 물론 나는 사랑의 법칙을 믿는다. 이 우주가 사랑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어찌 다른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 나는 빛을 받기 위해서 빛의 근원으로 즉접 간다. 반사되어 오는 빛이 아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빛에 따라 삶으로서 내게로 오는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고의 근원에서 오는 빛은 반사된 빛으로 착오를 할 수가 없다. 그 빛은 **완전한 이해**를 동반하며 그것을 설명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

- * 남을 비판하여 얻을 것이란 하나도 없고 다만 내게 영적으로 손상만 입는다. 자신들을 비판해 보도록 그들을 고취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 * 올 바른 노력을 했으나 아무 열매가 없다고 결코 생각치 말라. 모든 바른 노력은 결과가 눈에 보이던지 안 보이던지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그저 평화를 위해서 생각하고 생활하고 행동하기에 전념하라.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고무하라.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 * 내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기에 보범이 되면 그것이 남을 고무하여 스스로 그들은 변하게 할 수 있다.
- *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 보다는 관계된 모두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생각해 내어야 한다. 관계된 모두에게 공평한 해결책 만이 결국에는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 * 하는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오려면 그 하는 일의 동기가 좋아야 한다.

- 나의 통신문에서 -

질문: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대답: 저는 별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과 인생문제를 듣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하여 제가 할수 있는 대로 무엇이던 그들에게 줍니다. 그 반면 저는 그들이 주고저 하는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받을 것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줌으로서 축복을 받고 저는 받음으로서 축복을 받습니다.

질문: 당신은 왜 돈을 받지 않습니까?

대답: 저는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영적인 진리는 결코 팔아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파는 사람은 영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요청한 것도 아닌데 돈이 우편으로 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쇄나 우편요금에 씁니다. 영적인 진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도 전에 그것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우주란 참으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나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질문: 당신은 외롭거나 낙심하거나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답: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살면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감지하고 선한 노력이 모두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알 때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고 우주의 힘의 원천지와 접촉하고 있으면 지칠 수가 없습니다.

질문: 정년이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대답: 정년이란 활동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고 더 완전히 봉사하며 당신의 생을 받친다는 활동상의 변화를 뜻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멋진 시기가 됩니다. 바쁘면서 행복하고 뜻있는 때가 바로 정년기 입니다.

질문: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대답: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이 사랑과 친절로서 손을 뻗치면 당신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찾을 때는 당신은 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꽃이나 저녁노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을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지극한 분이시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부양하시고 만물을 함께 결속하시고 만물의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본질이요 실체 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법이건 영적인 법이건 만물에 속속이 퍼져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을 불순종하면 불행을 맛보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조화를 느끼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질문: 선한 것은 무엇이며 내 인생을 어떻게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대답: 선한 것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내 밖에서 어떤 영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 생을 채우고저 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는 내 안에서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야 말로 선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가를 생각해 보고 계획표를 짜고 그 계획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몸에 유익한 어떤 것, 걷는 운동같은 것이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뜻있는 독서 같이 지력을 자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좋은 음악 같이 감정을 부향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나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 오는 것들 입니다.

질문: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제가 그것을 지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까요?

대답: 그것이 건강문제이이면 "내가 내 몸을 학대하지 안했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이면 "나는 하나님이 바라는 만큼 사랑을 베풀었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면 "나는 내 분수에 맞게 살았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현재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끌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잘 이용하여 아주 훌륭한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부단한 생각을 통하여 당신의 내적 상태를 조성하고 그것이 당신 주위의 상태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최상의 가능성을 생각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선한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생각 하십시오.

질문: 제가 어떻게 참다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대답: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부터 저는 참다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와주면서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자발적으로 즐겨 하여야 합니다. 종종 손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나 격려의 말을 던져 주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주는 일을 통하여 인생의 보람을 느낍니다.

질문: 어떻게 평범한 가정부나 어머니가 당신과 같은 소지를 찾을 수 있습니까?

대답: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저의 경우와 똑 같이 내적평화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좌우하는 하나님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똑 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그랬듯이 당신도 지금 부터 당신이 믿는 모든 선한 일들을 하며 살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계획하에서 인간의 개개인에게 유일한 신분이 주워져 있는데 당신의 것을 찾아서 그것과 조화를 이루십시오. 제가 그랬듯이 마음을 열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속에 있다는 것이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유리한 것이 됩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가정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그 반면에 성장할 소지도 많습니다. 가정이란 환경속에 안주할 때 맨 먼저 자기중심에서 가정중심으로 이전을 합니다. 순수한 사랑이란 되 받는다는 생각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환경이 이 순수한 사랑의

첫 경험을 안겨 줍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기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질문: 더 아름다워지는 데는 항상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까?

대답: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그것을 강요에 따라 할 필요가 없어질 때 까지는 당신의 영적 성장에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 문제는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강제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당신은 문제를 자연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제가 완전한 쉼의 경지에 들어가 쉼의 필요성이 이상 없을 때가 정말 올까요?

대답: 당신이 이미 내적평화에 이르면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족감 속에서 신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계속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질문: 진정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 진정한 신앙인이란 어떤 신앙적인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료 사람들에게 애정적인 태도, 하나님은 법이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태도, 자기 중심적인 본질을 초월하고, 육체를 초월하고, 인생의 지상인생을 초월한다, 이런것들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이런 사람을 저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 하겠습니다.

질문: 무엇이 두려움을 극복 합니까

대답: 바른 종교적인 태도로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료 인간들을 향하여 사랑스러운 태도를 가진다면 당신은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벗겨 버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단히 인식하도록 당신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 집니다. 당신은 죽어 없어질 수 있는 몸이란 탈을 단지 쓰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당신은 몸은 살아 움직이는 실체요 그 실체성은 죽어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어찌 당신은 두려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순례자의 진척보도

- 편지서 발췌문들 -

편지 네통: 하루는 내가 편지회답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편지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봅시다."하고 대답했다. 첫 번째 편지가 말했다. "저는 한 농장의 가정부입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후로 특히 네(4)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저로서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한통의 편지를 써서 누군가 우리 정부나 유엔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그런 분들을 도덕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번 편지가 말했습니다. "세계평화 운동은 저에게는 너무 막중한 과업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후로 저의 도시에 있는 인권옹호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에서 인류평화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말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후로 저는 저와 시동생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말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후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국가간의 평화나 그룹간의 평화나 개인간의 평화나 자신의 내적평화나 그중 무슨 일을 위해서 하던지 간에 그것은 *전체적 평화정세를 당신이 개선하는 일역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평화스럽지 못한 상황속에 조화를 일으킬 때 마다 당신은 평화운동에 기여하는 것이다.

가장 귀중한 일들: 한번은 아주 멋있게 광야에서 지낸후 한동안 내 집이 있었던 한 도시의 거리를 나는 다시 혼자 걸었다. 오후 한시였다. 수백명의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창백하기도 하고 진한 화장을 한 얼굴로 질서있게 그들의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며 바쁘게 다니고 있다. 나는 색이 바랜 옷옷과 낡은 바지를 입고 그들 가운데서 걷는다. 고무바닥에 부드러운 칸바스로 된 나의 신발은 소리없이 움직이는데 옆에서는 꼭 쪼이고 말숙한 뒷꿈 높은 구두들이 달가닥 달가닥 소리를 낸다. 좀 가난한 지역에서는 나를 너그럽게 보아 준다. 좀 부한 지역에서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멸적인 표정을 짓기도 한다. 우리가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살수 있는 것들이 양편에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이 수시 때때로 언제나 보인다. 그중 어떤것들은 그저 쓸만하다고 하겠으나 대부분이 전혀 무가치한 것들이다. 어떤 것은 아름다운 가차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이 추하고 야하기 그지없다. 수천가지가 진열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중에는 가장 귀중한

것들이 빠져있다. 거기에는 자유도 건강도 행복도 마음의 평화도 진열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친구여,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 역시 그 질서 정연한 줄에서 이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경멸하는 눈초리를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나는 긍정적인 접근을 선택했다. 나는 반대하는 나쁜 것을 강조하는 대신 찬성하는 좋은 것을 강조한다. 부정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무슨 나쁜 것을 역설하는데 비판과 비난으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때때로 욕설을 한다. 자고로 부정적인 접근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며 반면에 긍정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 악이 공격을 받으면 전투 태세를 갖추어 전에는 약하고 흠드러져 보이던 것이 역공을 하며 그 정당성과 세력을 얻게 된다. 공격하지 않고 그 대신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형편이 바뀌면 그 악이 사라질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변할 수가 있다. 긍정적인 접근은 고무하고 영감을 주며 부정적인 접근은 화를 나게 만든다. 당신이 사람을 화를 나게 만들면 그 사람은 더욱 비열한 본능을 쫓아 행동하며 때때로 난폭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당신이 사람을 감화시키면 그 사람은 고귀한 본능을 쫓아 행동하며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성냄은 순간적인 것이나 감화는 종종 평생을 두고 영향을 끼친다.

평화의 사역: 진심으로 헌신하는 몇 사람들이 나쁜 몇 사람들에게 의해 대중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주춤거리서는 안된다. 우리는 계속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평화를 위해 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를 주창하고 평화를 위해 생활하며 다른 사람들을 고취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하여 평화를 생각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신념에 따라 삶으로서 평화의 마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작은 한 사람이 자기의 전 시간을 평화를 위해서 바침으로서 뉴스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약간의 시간을 바친다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감사의 말 조차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풍족히 상을 받을 것 임이라.

모든 좋은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더 높은 진실이 그에게 나타날 것 임이라.

결과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보답이 장대하리라.

동료 인간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사랑으로 응답을 받으리라.

실체를 이미 보고 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흠으로 된 육체가 아니요 흠으로 된 육체를 움직이는 활력이 실상이요 불멸의 요소임을 알 것 임이라. 죽음이라는 것을 이 지상 생애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변화로 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영광스러운 변화로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과 기뻐할 것이라. 자기의 생애를 바침으로서 축복을 받고 앞길에 놓인 난관을 용기와 신념으로 극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두 번째 축복을 받을 것임이라.

이기적인 동기없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 영적인 길에 매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하늘왕국의 문을 부수고 통과하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충성스러히 깨끗한 마음으로 그 문에 접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그 문을 능히 통과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아는 길: 우리들 보다 더 큰 권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주의 다른 모든 데에도 있다. 이것을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끊임 없는 인도를 받는다 것,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 없이 의식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창조물에 대한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음에 평화를 느끼는 것으로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지라고 침착하고 평온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을 준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기쁨이 너무나 차 넘쳐 흘러서 세계를 축복으로 채우는 것이다. 나는 이제 오로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 하나님께서 순례여행을 떠나라고 나를 인도했을 때 나는 그것을 기꺼이 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도록 나를 인도 했을 때 한결 같이 그것도 기꺼이 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나에게 비판이 날아 올 때 나는 그것을 받고 머리를 숙이지 안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나에게 칭찬이 날아 올 때 나는 즉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린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써서 일을 하시는 작은 도구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도록 나를 인도 할 때 나에게 힘이 주어지고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고 길이 열리고 할 말이 주어진다. 나의 가는 길이 쉽거나 어렵거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받으며 나아가고, 나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 감사와 영광의 찬미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지 않다. 당신이나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들 한사람 한사람 모두를 항상 찾고 계신다. 당신이 찾지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의 법에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뜻과 애착물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버려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거기에는 고요함이 기쁘러 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 할 것이다.

두려움에 대하여: 두려움 보다 세계의 평화나 마음의 평화를 가로 막는 더 큰 장애물은 없다. 우리가 두려워 질대 생각치도 않게 미움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 또한 두려워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입히고 세계적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킬 뿐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것이 집결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들을 더욱 유인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 할것이 없고 사랑을 발산한다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는 모본과 메시지를 이 세계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간소함으로 인한 해방: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간소함과 봉사로 헌신하는 나의 생활은 궁핍하고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간소함으로 인한 자유를 모른다. 나는 나의 건강을 지탱하는 음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나는 훌륭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음식을 즐기나 살기 위하여 먹는다. 나는 먹기 위하여 살지 않으며 적당히 먹을 줄을 안다. 나는 음식의 노예가 아니다. 나의 옷은 아주 편하며 또한 제일 실용적이다. 내 신발로 말하자면 그 등은 부드러운 천이고 창은 연한 고무 같아서 마치 맨발로 걷는 기분을 느낀다. 나는 유행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안락하고 편리한 것의 노예가 아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드러운 침대에서 잘 자듯이 길가의 잔디에서도 잠을 잘 잔다. 나는 불필요한 소유물이나 의미없는 활동으로 짐을 지지 않는다. 나의 생활은 충만하고 좋으며 혼잡하지 않다. 나는 내 일을 쉽게 그리고 기쁘게 한다. 나는 내 온 주위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본다. 나는 우주를 다스리는 법들을 인지하며 즐겁고 기꺼이 그 법들을 지킨다. 그때 나는 마음의 평화를 발견한다. 나의 생활은 모범이 되어야 하며 내가 즐겁고 기꺼이 그것에 따라 삶으로써 조화를 발견한다. 나는 온 일류와 내가 하나로 뭉쳐 있으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뭉쳐 있다는 것을 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줌으로서 나의 삶은 행복과 기쁨이 넘쳐 흐른다.

현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황금시대의 도래를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깊이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을 찾아 내어야 한다. 사실 거기에는 무관심과 이기심도 있을 것이나 또한 좋은 것도 있다. 분별하여 잘 보면 선한 것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사랑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찾아 보아야 한다. 사랑은 핵무기로 파멸될 세계를 구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 드리고 말씀에 응답하라. 동료인간을 사랑하라. 그들을 향하여 도와 주고 친절을 베풀어라. 사랑의 도를 따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커러 지기에 합당 한 자가 되라.

영적 성장은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과 똑 같은 과정을 밟는다. 다섯 살 먹은 아이가 다음 생일 때 부모 만큼 키가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일학년 학생이 그 학기가 끝나면서 졸업할 것을 기대할 수 없듯이 하루 아침에 내적평화를 얻기를 기대하는 진정한 학생은 있을 수 없다.

신비한 처방법: 싸움을 해결하는 한 비법이 있다. 그것은 이렇다. 유익한 것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싸움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싸움을 피하는 한 비법이 있다. 그것은 이렇다.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말고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라.

미성숙에 대하여: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은 미성숙이다. 성숙한 사람 사이에 전쟁은 문제거리가 될 수 없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하다. 미성숙하면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숙해 지듯이 사람들은 성숙해 질 수 있다. 지도자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우리들의 미성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해 짐에 따라 우리는 더 좋은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며 더 좋은 공공기관들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개선하는 작업을 회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메시지: 나의 친구들이여, 세계의 정세는 심각합니다. 인류는 공포에 떨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혼돈과 황금 시대의 사이에서 칼날 위를 밟고 걷고 있으며 강한 바람이 완전한 혼돈 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사람들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단호하고 신속하게 혼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한 모든 귀중한 것들이 닥쳐오는 대학살 속에서 파멸될 것입니다.

평화의 길은 이것이다: 극복할 지니 악은 선으로, 거짓은 진실로, 증오는 사랑으로 극복하라.

황금율 역시 좋은 것이다.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개념이지 실행성이 없다고 가볍게 할 말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법으로서 종력의 법칙처럼 엄격하게 적용된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 법을 경시하면 혼란을 초래한다. 이 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이 무섭고 전쟁에 찌드러운 세계를 우리가 즐겨 꾸던 꿈 이상으로 평화와 풍요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일반대중의 평화운동: 당신은 지역사회 평화 침묵회를 시작하여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한 평화기도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나의 인쇄물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면에서 평화를 다루고 있다. 한 구절을 읽고 침묵속에서 잘 생각하고 나서 그것을 토론한다. 거기에 내포된 영적 진리를 이해하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위해 일할 영적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평화연구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당면하고 있는 세계의 현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세계적 평화형세로 바꾸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당연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은 종식 되어야 한다. 또한 다 같이 무기를 버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심리적인 폭력이 아직도 존재하는 세계에서 육체적인 폭력을 피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들은 전쟁을 이르킬 권한을 유엔에 반환해야 한다.

전 세계의 국민은 전 인간가족의 복리를 어떤 특수 그룹의 복리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 놓을 줄을 알아야 한다. 기근과 고통을 줄이고 두려움과 미움도

줄여야 한다. 평화와 연관된 국가적 문제들이 있다. 그룹간에 평화를 이루도록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첫째가는 한 가지 국가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쟁시의 경제를 평화시의 경제로 조절하는 것이다. 싸움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기 위한 **평화부**를 우리 정부기관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평화부를 창설할 것을 우리는 요구할 수가 있다.

세계문제와 그 해결방안이 아주 명확해지면 당신은 평화 활동 그룹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당신은 점진적으로 평화활동그룹 회원이 될수 있다. 배워서 이해가 된 어떤 문제를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 평화활동이란 항상 평화의 정도를 쫓아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평화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편지, 평화입법에 관여된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평화주제를 다루는 편집인에게 보내는 편지, 평화에 대하여 배운 것을 친구에게 알리는 편지 - 이런 편지를 쓰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평화를 주제로한 공중집회, 평화를 주제로하는 연사, 평화인쇄물을 배포하는 일,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하여 말하는 일, 평화의 주간, 평화 전시회, 평화의 보행, 평화의 뱃노리 등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평화의 길에 헌신하는 정치인에게 한표를 찍어 주는 방법도 있다.

일반대중적인 평화사역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위기의 시기에 당면하여 도시마다 **지역사회평화협회**가 세워져야 한다. 이런 그룹은 관심있는 몇 사람으로 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당신이 시작 할 수 있다!

피스 필그림 Peace Pilgrim

번역자의 말

역자가 피스 필그림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이 소책자 번역을 완료하기 5개월 전 이었다. 그 때 나의 큰 아들 유진이가 집에 머물었다가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나에게 놓고 간 피스 필그림이란 표제의 책을 읽고서였다. 솔직히 말하여 그를 알고 난 직후 나는 놀라움과 기쁨과 흥분으로 떠 있었다. 웹사이트를 열어 보았다. 하필이면 한국말 번역판이 없었다. 나는 실망하였으나 아들이 번역을 하라고 격려를 했다.

마음의 평화를 늘 갈망하며 살아 온 나에게 그것은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다.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 할 것이다. 인생의 목적과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굿뉴스(Good News)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피스 필그림의 가르침은 그 찾는 길을 인도하는 매일의 생활 지침서라고 하겠다. 나는 그를 현대의 숨은 선지자라고 부르고 싶다. 이 지침서는 우리의 눈을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하여 세계를 통찰하도록 일깨워 준다. 나를 알고 나아가서 나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연계된다는 피스 필그림의 논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평화와 기쁨이 넘쳐 내 이웃으로 확산된다면 그 보다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우주의 법칙은 곧 하나님의 법이니 이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평화를 누리자.

이제 나는 다른 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소리는 선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이 소책자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교정을 보아 준 사랑하는 아내 에스터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특히 피스 필그림을 소개해 준 아들 유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역

자 하 현 기 (Harry Ha)

2009년 5월 1일 토론토에서

피스 필그림 PEACE PILGRIM 1908-1981

1953부터 1981 까지 그녀의 순례여정에 관하여

순례여정이란 기도하고 본을 보이며 가볍게 보도 여행을 하는 것이다. 나의 보행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뜻한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바친다 함은 무엇 보다도 기도로 일관하여 산다는 것이다.

피스 필그림은 북미 대륙을 25,000 마일 이상 도보로 횡 단하며 그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것이 평화의 길이다 악 는 선으로, 허위는 진실로, 증오는 사랑 으로 극복하라." 그의 긴 웃웃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밖에 없는 그가 맹세하기를 "잠잘 곳이 생길 때 까지 걸으면서, 먹을 것을 얻기 까지 굶으면서 인류 가 평화의 길을 배울 때 까지 나는 방랑 자로 남아 있을 것이라." 그는 먼지나 는 길이나 도심지의 거리를 걸으면서, 교회나 대학교의 강당에서, 시민단체 앞 에서, 텔레비와 라디오를 통하여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내면 과 외면의 평화에대 하여 토론했다.

그의 순례는 평화의 모든 양상을 다 포함했다. 국가 간의, 그룹 간의, 개인 간의, 궁극적인 평화의 출발점인 가장 중요한 마음속의 평화까지 다 총괄한다.

사람들이 심적평화를 기하학적으로 달성할 때 세계평화는 이루어 진다고 그는 믿었다. 그의 생애와 사역이 보여 주었듯이 한 사람씩 심적평화를 얻으므로 각자 세계평화 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이다.

이 한글판 **정신적 평화의 진일보(Steps Toward Inner Peace)**의 소책자는 판권이 없으므로 자유로히 복사를 할 수 있으나 영리적으로 하는 복사는 삼가하십시오.

www.peacepilgrim.org로 가시면 다운로드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